

익산시 임신·출산 지원 '다채'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익산시가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을 비롯해 출산 후 맞춤형 육아 서비스까지 마련하면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선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검사와 엽산제, 철분제를 지급하고 스케일링과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신 24주 이상 여성에게는 개인 당 26만 원의

건강관리비도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분만에정일에 임박했거나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빈혈과 저체중 등의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가정이며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감자와 당근, 감정콩 등 각종 보충영양식품을 지급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부부에게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지난 7월부터 연령을 폐지하고 지원회수도 늘렸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익산시는 맞벌이와 다자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 지식과 양육경험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로,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은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한다.

2가정 이상이 한 그룹으로 구성돼 등·하원을 지원하거나 육아정보 교환, 놀이·체험학습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전문화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를 방문해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학생중심 현장 밀착 경영에 나섰다.

원광대 박맹수 총장, 현장 밀착 경영

2학기 개강 앞두고, 기숙사 간담회 통해 운영 상황 점검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를 방문해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학생중심 현장 밀착 경영에 나섰다.

28일 대학본부 운영위원회와 기숙사를 찾은 박맹수 총장은 기숙사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숙사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사생활을 위해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맹수 총장은 "전체 재학생의 22%인 3,620여 명이 24시간 교내에 상주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직접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인한 식중독 사고, 외부인 침입, 추락,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부모 및 사생들

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학생 전용 생활관 등 8개동과 별관을 포함해 총 1,740여 개의 실을 갖추고, 3620여명을 수용하는 원광대 기숙사는 행정, 영양사,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등 74명의 소속 인력이 학생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소 및 매트리스 교체 등 주기적으로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외출, 외박 등 자율과 책임중심의 관리, 공정한 사생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장 중심의 관리, 시민의식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관리를 사생관리 방향으로 삼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정현을 익산시장은 29일 익산역 국화실에서 다문화지원 관련 단체, 결혼 이민여성 등 다문화가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다양한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등 시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 다문화가족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향후 설치될 국제문화관에 대한 명칭 제안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내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1회 임시회를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경수·정지수·김영자·이한세·김경식 의원의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추경 1조2,486억8,900만원보다 1,370억6,100만원(9.9%)이 증액된 1조3,857억5,0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2,308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548억7,200만원으로 각 상임위의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공설시장,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 도입

전국 최초... 판매 제품 가격 변동·원산지 정보 제공

군산공설시장에 전국 최초로 중앙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해 중간단말기를 통해 각 점포에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격과 제품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전자가격표시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군산공설시장 상인회, ㈜에이텍에이피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전자가격표시기(ESL) 도입을 위한 상생지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국에 분포돼있는 전통시장은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수기로 바뀌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많은 고객이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지적

이 끊어질 않고 있다.

군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군산공설시장에서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LG CNS 자동차 사업부에서 분할 설립된 중소기업인 ㈜에이텍에이피에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 및 기기를 지원해 이뤄졌다.

군산공설시장에 설치되는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은 상인회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각 점포에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판매 제품 가격 변동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군산공설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행태조사사업으로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형마트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했으나 약초, 건어물, 반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판매대가 미정비 되어 전자가격표시기(ESL)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상생지원금은 판매대 정비가 되어 있는 20개 점포, 200개 상품에 대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공설시장 상인회와 협하여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 상인교육을 통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한희선 센터장은 "가격 및 원산지 표시는 전국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며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익산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보조금의 발전적 확대 개편의 일환으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농업보조금 과거 자료 31만3천건

의 세부자료를 사전에 작성해 업로드하고 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위해 농업관련 7개 부서 및 읍면동 농업담당자 90명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배경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농업

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DB 연계를 통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영농이력, 농작물정보,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타 부서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여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등의 축적을 통한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수립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9월 2일 출시

개인별 70만원까지 구매 가능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오는 9월 2일부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진화 출시된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종이상품권 출시(2018.9.3.) 1년만에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해 상품권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상품권과 병행해 발행되며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 원 여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등의 축적을 통한 보다 정확한 농업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수립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인증 대체 신청서 제출 후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종이상품권은 은행에서 4일 이후 구매가능)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도입으로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은 골목상권 인센티브 신청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는 익월 2일~15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종이상품권 사용금액을 합산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월 2일~15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종이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